

## 병아리 감별사와 별(☆)이사



한때는 1년에 한두 명만 배출되어 희소 가치를 인정받던 변리사(辨理士). 2000년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늘었지만 저자가 합격한 해에는 고작 11명이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

최근 들어 변리사 시험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1999년 36회 변리사 시험 때는 80명 선발에 7,000여 명이 몰려 1998년 대비 54퍼센트가 증가했다. 경쟁률은 85 대 1에 가까웠다.

이처럼 변리사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식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변리사가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다가 경기 불황과 조기 퇴직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물론 회사원들까지도 시험에 가세하기 때문이다.

이토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한 직종이지만 일반인들은 변리사가 어떤 직업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 막연히 법률을 다루는 직종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유사한 전문가이려니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변리

사가 특허, 의장, 실용신안, 상표, 각종 신지식 재산권 등에 관한 신청, 소송 등을 대리하는 직업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청년 김별종의 소식이 고향 마을에 전해지던 날이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하나같이 혀를 찼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녀석이 병아리 감별사가 됐다는 얘긴가.”

“판검사 만들려고 아들을 법대에 보냈던데 그 영감 신세가 말이 아니군.”

소문이 어떻게 떠돌았는지 변리사가 병아리 감별사의 약칭으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변리사 시험 합격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처럼 어렵던 시절, 그 치열한 경쟁을 뚫어 변리사가 된 김별종을 두고 시골 친지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다. 심지어 “병아리 감별사가 됐으니 이민을 준비할 것”이라고 점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축하를 받긴 커녕 편잔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었다. 물론 농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에피소드겠지만 그만큼 변리사를 생뚱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해외 여행중에 만난 경상도 아저씨가 내게 직업을 물었다.

“직업이 뭐요?”

“변리사입니다.”

“뭐라구요? 별·이·사?”

“아닙니다. 변·리·사.”

나름대로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그 아저씨는 한참이나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마침 명함이 없던 나는 그가 내미는 수첩에 집 주소와 이름을 적어 주었다. 함께 사진 찍으며 나를 길동무 삼던 그 아저씨가 귀국하자마자 소식을 전해 왔다. 스냅 사진이 동봉된 그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터지는 웃음

을 참지 못했다.

아저씨의 편지는 ‘남호현 별 이사님, 안녕하세요?’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상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특별한 이사(理事)님인 줄 착각했던 것이다. 아니면 별(☆)을 달고 있는 중역쯤으로 혼동한 것 같기도 했다.

8·15 해방과 더불어 그이듬해 특허법이 제정되고 변리사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변리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건 우리 변리사들의 잘못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아이디어 싸움과 경제 전쟁 속에서 지식 재산권이 얼마나 멋진 무기인지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한 탓이다. 두꺼운 법률 서적만 뒤적이며 어려운 용어로 폼만 잡았기 때문이다.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은 변리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이 바로 변리사임을 알아야 한다. 무한 경쟁에서 여유만만하게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직접 변리사의 입장이 되어 지식 재산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손에 쥐는 것이다. 전국과학전람회에 참가한 소년 소녀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라면 그 아이는 병아리 감별사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아무튼 병아리 감별사이건 별(☆)이사이건 나는 변리사란 직업을 말머리로 삼아 아주 흥미진진한 여행길에 나설 참이다. 두뇌 전쟁에서 통쾌하고 짜릿한 승리를 쟁취하려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신발 끈부터 단단히 맬 것을 부탁한다.

특허법이나 지식 재산권을 들먹이면 꼴치부터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나는 그들의 손목을 잡고 즐겁게 떠날 작정이다. 이토록 재미있는 여행이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나는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

작한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만날 꼴찌를 면치 못했던 녀석이 갑자기 일등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짜릿할까. 나와 함께 여행을 시작한 그대, 혹은 평생 꼴찌를 못 면할 듯 보이던 그대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꾼다’면 이보다 신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